

## 在元 高麗人 관련의 大都寺院

윤 기엽(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 I. 서론

高麗가 약 30년 간 몽고와 抗爭하고 이후 80여 년 동안 元의 지배질서에 편입되면서 麗元 두 나라 사이에는 활발한 人的交流가 이루어졌다. 많은 수의 몽고인이 고려를 내왕하였고 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많은 高麗인이 다양한 형태로 원나라로 건너갔다. 對蒙抗爭 중에 발생한 전쟁포로와 流民, 강화이후 朝貢의 형태로 바쳐진 宦官, 貢女, 문화교류 과정에서 진출한 僧侶, 文人 등 각계각층의 고려인이 원나라에 이주하여 생활하였다.<sup>1)</sup> 이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은 元의 수도인 大都(燕京)와 고려국경으로부터 遼陽, 瀋陽에 이르는 만주일대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많은 고려인이 원나라 각 지역에 흩어져 생활하게 되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 내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갔다. 이 과정에서 고려인에 의해서 건립, 운영된 불교사원이 속속 출현하였다. 즉 정복국가인 元帝國 내에 피정복민인 고려인의 힘에 의해서 운영된 親高麗的 성향의 사원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같은 부류의 사원은 異國 땅에 존재해 있으면서도 高麗的인 색채를 띠

1) 원나라에 건너간 고려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다음의 글이 있다. 張東翼, 「元에 진출한 高麗人」, 『高麗後期外交史研究』(서울: 一潮閣, 1994)

있기 때문에 高麗民의 원나라 내에서의 신앙생활, 兩國의 종교적 교류, 高麗僧의 활동상황 등을 전하고 있어서 고려 불교사의 일부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것의 자세한 실상을 전해주는 사료는 매우 소략한 형편이다. 원나라를 자주 방문하였거나, 그곳에서 관직생활을 한 유학자 李齊賢(1287-1367), 李穀(1298-1351), 李穡(1328-1396) 등이 고려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원에 대해 그 記文이나 碑文 등을 남긴 것이 대부분이다.<sup>2)</sup> 그것도 대개 大都와 그 인근지역의 사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寺院研究의 침체 때문에 현재 이것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원에 건너간 高麗僧들이 활동 중에 관계한 寺院과 그 사원의 創建主나 重創人 그리고 施主者 등의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이다.<sup>3)</sup>

이제 필자는 위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세 유학자들이 쓴 記文과 碑文 등을 토대로 하여 이들 사원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사원이 대개 元에 거주한 高麗人이 관계한 사원이고, 또 지역적으로 大都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在元 高麗人 관련의 大都寺院’(大都寺院으로 약함)으로 부르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대도사원에 관계한 고려인의 활동사항과 함께 각 사원의 實狀과 그 기능을 위주로 고찰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高麗佛敎界와의 관계 속에서 각 사원의 실제 내용을 조명하고 그 역사적 意義를 부여하고자 한다.

## II. 大都寺院의 類型과 그 實狀

---

2) 李齊賢 「大都南城興福寺碣」, 「妙蓮寺重興碑」; 李穀 「京師報恩光敎寺記」, 「大崇恩福元寺高麗第一代師圓公碑」, 「大都大興縣重興龍泉寺碑」, 「大都天台法王寺記」, 「京師金孫彌陀寺記」; 李穡 「西天提納薄陀尊者浮屠銘」

3) 다만 喇嘛敎의 高麗傳來라는 측면에서 고려승 義旋이 주지한 大都 延聖寺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있다. 李龍範, 「元代 喇嘛敎의 高麗傳來」, 『佛敎學報』 제2집(서울: 佛敎文化研究院, 1964), 182-184쪽

## 1. 高麗國王의 創建사원(光敎寺)

## 1) 光敎寺와 忠宣王

광교사는 大都(京師)의 彰義門 밖에 있던 사원으로서 忠宣王(1309-1313)에 의해서 창건되었다.<sup>4)</sup> 충선왕이 재위에 있던 지 5년 만에 아들 忠肅王에게 양위하고 대도에 거주할 때 건립한 사원이었다. 절은 元 仁宗 延祐4년(1317; 충숙왕 4)에 착공되어 연우 6년(1319; 충숙왕 6)에 완공되었다. 광교사가 충선왕에 의해서 창건된 배경을 보도록 하자.

광교사가 창건되기 두 해전인 충숙왕 2년(1315) 12월에 忠宣王妃 薊國大長公主(?-1315)가 그곳 대도에서 病死했다.<sup>5)</sup> 계국대장공주는 晉王 甘麻刺(1263-1302)의 딸로서 아버지 진왕이 世祖와 正妃(昭睿順聖皇后)의 소생인 황태자 眞金의 長子였던 관계로 그녀는 황실 정통의 피를 이어받은 장본인이었다. 이 때문에 충선왕과 계국공주의 결혼은 고려왕실의 서열을 상승시켰고, 황실 내에서도 충선왕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었다.<sup>6)</sup> 따라서 공주의 죽음은 곧 충선왕의 중요한 한 지지기반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충선왕이 다음 해(1316) 3월에 元 武宗(1308-1311)으로부터 제수 받은 瀋陽王을 조카 王暘에게 양위한 것도<sup>7)</sup> 공주의 죽음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가던 그의 정치적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심양왕을 양위한 같은 해 7월에는 제2妃이며 충숙왕의 生母인 懿妃가 역시 그곳 대도에서 세상을 떠났다.<sup>8)</sup> 의비는 몽고인으로서 그다지 높지 않은 신분이었으나 충선왕의 두 아들인 鑑과 충숙왕은 바로 그녀의 소생이었다. 그래서 의비는 충선왕에게

4) 李穀, 「京師報恩光敎寺記」, 『稼亭集』 권2

5) 『高麗史』 권34, 世家 忠烈王2년 12월 ; 『高麗史』 권89, 列傳 后妃2 薊國大長公主

6) 周采赫, 「元 萬卷堂의 설치와 高麗儒者」, 『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서울: 知識産業社, 1988), 232쪽

7) 『高麗史』 권34, 世家 忠肅王3년 3월

8) 『高麗史』 권34, 世家 忠肅王3년 7월 ; 『高麗史』 권89, 列傳 后妃2 懿妃

가장 소중한 왕비이기도 했다.<sup>9)</sup>

충선왕은 당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불행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삶의 고통을 털어보고자 불교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의비가 사망한 다음 해에는 자신의 사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광고사를 창건한 듯하다. 또한 절의 창건에는 충선왕이 재위 중에 일으킨 世子 鑑의 살해사건에<sup>10)</sup> 대한 회한의 뜻이 담겨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광고사가 기공되기 시작하여 완공되던 3년 간(1317-1319)은 충선왕이 어느 때보다도 여러 佛事에 열성을 보이던 시기였다. 광고사가 착공되던 해에 충선왕은 전부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杭州의 慧因寺에 香幡을 시주하였다.<sup>11)</sup> 또 충숙왕6년(1319) 3월에 李齊賢(1287-1367), 權漢功(?-1349) 등을 데리고 江浙지방을 거쳐 寶陀山 소재의 寶陀寺에 香을 바쳤으며,<sup>12)</sup> 같은 해 9월에는 幻住庵의 中峯明本(1238-1295)과 교류하는 등 江南 지역의 여러 禪僧과 사원을 방문했다.<sup>13)</sup> 모두 계국공주와 의비 死後에 있었던 일로서 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충선왕의 행보였다.

광고사가 완공된 다음 해인 충숙왕7년(1320) 1월에 仁宗이 세상을 떠남에 따라 충선왕 지지기반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졌다. 인종을 이어 같은 해 3월에 英宗(1321-1323)이 즉위하자 그 해 12월 충선왕은 宦官 任伯顏秃古思의 증상에 의해 티베트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sup>14)</sup> 따라서 창건주가 없는

9) 정용숙, 『고려시대의 后妃』(서울: 민음사, 1992), 241쪽

10) 『高麗史』 권33, 世家 권33, 忠宣王2년 5월

11) 金庠基, 「李益齋의 在元 生涯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 제1집(서울: 大東文化研究院, 1963), 17-18쪽 ; 張東翼 편, 慧福, 「高麗國相元公置田碑」, 『元代歷史資料集錄』(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76-177쪽

12) 『高麗史節要』 권24, 忠肅王6년 3월

13) 張東翼 편, 「示衆」, 앞의 책, 1997, 147-152쪽

14) 『高麗史』 권35, 世家 忠肅王7년 12월 ; 『高麗史』 권122, 列傳 任伯顏秃古思

절의 사정도 열악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영종이 세상을 떠나고 泰定帝(1324-1328)가 즉위하면서 충선왕의 유배생활도 3년 만에(1320, 12-13 23, 9) 끝이 났지만,<sup>15)</sup> 얼마 가지 않아 충선왕이 세상을 떠나고(1325년, 충숙왕 12) 주지로 모셔왔던 華嚴教師 澄公마저 입적하게 되어 광교사는 衰落의 길을 면할 수 없었다.

## 2) 光敎寺와 義旋

충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 기울어져 가던 광교사가 다시 쇠신되기 시작한 것은 忠肅王이 復位하면서부터였다. 충숙왕 복위1년(1332)에 충숙왕과 瀋王이 충선왕의 유언을 받들어 趙仁規(1237-1308)의 제4子인 義旋을 광교사에 주지하게 하였다.<sup>16)</sup>

충선왕은 아들 충숙왕에게 의선으로 하여금 광교사를 주지하도록 유언을 내릴 만큼 조인규 가문과는 전부터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 충선왕은 세자로 있던 18세 때(1292; 충렬왕18년) 조인규의 딸을 世子妃로 맞이하면서 조씨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었다.<sup>17)</sup>

충선왕은 복위년(1308) 11월에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宰相之宗을 공표했는데 선정된 15개의 名門 중에 조인규의 平壤趙氏 가문이 포함돼 있었다.<sup>18)</sup> 이처럼 충선왕이 광교사의 주지를 의선에게 부탁한 데에는 이전 둘 사이의 돈독한 혈연적 유대 관계가 그대로 표면화된 것이었다.

의선이 광교사에 주지할 무렵 고려의 瑩源寺와 대도의 延聖寺 주지를 겸하고 있던 시기였다.<sup>19)</sup> 또 천자로부터 ‘定慧圓通知見無礙三藏法師’라는 호

15) 『高麗史』 권34, 世家 忠宣王5년

16) 李穀, 「京師報恩光敎寺記」, 『稼亭集』 권2, “今高麗國王暨瀋王, 以父王遺令, 召本國天台師住持瑩原寺重大臣慈恩君, 特賜定慧圓通知見無礙三藏法師旋公, 主其寺”

17) 『高麗史』 권30, 世家 忠烈王18년 윤6월

18) 『高麗史』 권33, 世家 忠宣王 복위년 11월

19) 李穀, 「高麗國天台佛恩寺重興記」, 『稼亭集』 권3

까지 하사받으면서 麗元 양국 政敎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sup>20)</sup> 이런 상황을 볼 때 광교사는 의선이 주지하던 중에 상당한 번영을 누렸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처럼 광교사의 창건이 계국공주(?-1315)와 의비(?-1316)의 죽음 직후였고, 또 創建主 충선왕의 遺命에 의해서 주지가 임명되었던 것을 볼 때 광교사의 주된 기능은 충선왕과 두 충선왕비를 追福하는 고려왕실의 원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光敎寺와 고려의 天台宗

충선왕 한 개인의 발원으로 창건된 광교사는 완공된 당시에 天台敎가 강연된 天台宗사원이었다. 충선왕이 비교적 천태종과 가까웠던 연유로는 먼저 인척관계를 맺고 있던 趙仁規 가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인규 가문은 원간섭기 이후 고려말기까지 4代에 걸쳐서 天台僧 4명을 배출한 天台宗系 가문이었다.<sup>21)</sup> 충렬왕, 충선왕대에는 조인규의 형과 아들 되는 混其, 義旋 등이 천태승으로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충선왕이 천태종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인척 되는 조인규 가문이 천태종과 연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충선왕 재위 시에 고려의 天台高僧에 대한 우대와 그 시책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충선왕은 復位하던 날(1308년 8월 癸丑日) 천태승 無畏丁午에게 ‘禪敎各宗山門道伴總攝調提’의 호를 내리고 전례가 없던 禪敎兩宗의 僧政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또 그는 다음 해 겨울에 丁午를 國淸寺의 주지에 임명하여 5개의 절을 下院으로 예속시키면서 천태종을 적극 후원하였다.<sup>22)</sup> 이치

20) 李齊賢, 「妙蓮寺重興碑」, 『益齋亂藁』 권7 ; 李穀, 「趙貞肅公祠堂記」, 『稼亭集』 권3 ; 「高麗國天台佛恩寺重興記」, 『稼亭集』 권3

21) 조인규의 형인 混其, 제4자인 義旋, 손자인 普解, 그리고 증손인 妙慧였다.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서울: 一潮閣, 1991), 194쪽

22) 朴全之, 「靈鳳山龍巖寺重創記」, 『東文選』 권68

림 충선왕이 광고사를 완공하면서 天台의 가르침을 펴고자 한 것은 고려국 왕 재위 때부터 갖고 있던 그의 천태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그 시책에서 비롯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충숙왕7년(1320) 이후 광고사에 주지하고 있던 華嚴僧 징공이 충선왕의 타계(1325년) 후 곧 이어 입적하고, 얼마 후 천태승 의선이 주지하게 되어(1332년) 광고사는 다시 천태종 사원으로 환원되었다. 이때 충숙왕이 천태승 의선을 주지로 임명한 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父王 충선왕의 遺命에 의한 것이었다. 충선왕으로부터 양위를 받아 즉위한 충숙왕은 그 해에(1313년) 瑩源寺의 주지로 있던 無畏丁午를 國統으로 삼았다.<sup>23)</sup> 충렬왕과 충선왕대에 존숭되어 오던 天台僧 丁午를 충숙왕 자신도 그대로 수용하여 당시 국청사, 영원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천태종단을 후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충숙왕이 복위하던 해(1332년) 3월에 의선으로 하여금 광고사에 주지하도록 한 것은 그가 고려에서 펴고 있던 불교정책과도 부합되는 조치였다.

원간섭기 중 고려의 천태종은 妙蓮寺의 창건(1283년; 충렬왕9)을 계기로 하여 크게 부흥하였는데 대도의 광고사도 그러한 고려 불교계의 추세와 짝하고 있었다. 즉 충선왕, 충숙왕대의 義旋과 丁午 두 천태승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당시 고려의 천태종은 국외 大都의 光敎寺와 국내 開京 인근의 國淸寺를 중심으로 하여 증흥기를 맞았던 것이다.

## 2. 高麗僧의 住持사원(福元寺, 延聖寺)

### 1) 福元寺와 瑜伽僧 海圓

都城 남쪽에 위치한 복원사는 元 武宗 至大1년(1308; 충렬왕34) 3월에

23) 朴全之, 「靈鳳山龍巖寺重創記」, 『東文選』 권68 ; 『高麗史』 권34, 世家 忠肅王 즉위년 11월

기공되어<sup>24)</sup> 仁宗 皇慶1년(1312; 충선왕4)에 완공된 사원이었다.<sup>25)</sup> 복원사는 佛法을 숭상한 무종(1308-1311)의 깊은 관심을 받아 사원의 건립을 위해 行工部,<sup>26)</sup> 規運都總管府(훗날 隆禧院) 등이 설치되었다.<sup>27)</sup> 무종이 至大4년(1311) 1월에 세상을 떠난 이후 절은 무종의 神御殿寺院<sup>28)</sup>이 되었고,<sup>29)</sup> 완공된 그 해에 인종(1312-1320)의 명에 의해 고려승 海圓이 주지하였다.

해원(1262-1340)은 전북 咸悅郡 출신으로 속성이 趙氏이고, 12세 때 인근 金山寺 釋宏에게 출가한 瑜伽僧이었다.<sup>30)</sup> 그는 安西王<sup>31)</sup>의 추천에 의해 成宗(1295-1307) 大德9년(1305; 충렬왕31)에 황제의 초빙을 받고 원나라에 건너가 활동하기 시작했다.<sup>32)</sup> 뛰어난 戒行으로 명성을 날리던 해원은 대덕11년(1307; 충렬왕33) 겨울부터는 무종을 호종하였고, 인종이 즉위하자 福元寺의 주지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해원은 성종, 무종, 인종 3대에 걸쳐서 두터운 신임을 받은 고승이었다.

그런데 해원이 성종~인종대(충렬왕 말~충숙왕 초)에 원황실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율을 엄격히 준수하는 고결한 승려

- 24) 『元史』 권22, 本紀 武宗 至大1년 3월 戊寅, “建佛寺於大都南城南”  
李穀, 「大崇恩福元寺 高麗第一代師圓公碑」, 『稼亭集』 권6, “武宗皇帝歸崇佛業, 肇興梵刹于都城之南”
- 25) 『元史』 권24, 本紀 仁宗 皇慶1년 4월 庚寅
- 26) 『元史』 권22, 本紀 武宗 至大2년 9월 癸未
- 27) 『元史』 권22, 本紀 武宗 至大3년 6월 庚戌 ; 11월 壬午
- 28) 元代에 황제의 眞影을 모신 神御殿은 대개 사원 내에 부설되었는데 그러한 사원을 神御殿寺院이라고 할 수 있다. 眞殿이 설치된 사원을 보통 眞殿寺院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29) 『元史』 권24, 本紀 仁宗 至大4년 10월 己巳, “勅繪武宗御容, 奉安大崇恩福元寺, 月四上祭”
- 30) 李穀, 「大崇恩福元寺 高麗第一代師圓公碑」, 『稼亭集』 권6
- 31) 세조의 孫이 되고, 성종에게 사촌 되는 阿難達(答)이다. 성종 死後에 무종이 된 海山과의 皇權 싸움에서 패한 인물이다. 『高麗史』 권33, 世家 忠宣王 즉위년
- 32) 李穀, 「大崇恩福元寺 高麗第一代師圓公碑」, 『稼亭集』 권6, “聞高麗僧戒行甚高, 請于成宗, 遣使招致”



였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원간섭기 중 고려 불교계의 法相宗(瑜伽業)의 융성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중기 때 玄化寺를 중심으로 세력을 떨친 고려의 법상종은 원간섭기에 들어와 桐華寺와 法住寺를 주무대로 한 惠永(1228-1294)<sup>33)</sup>과 彌授(1240-1327)<sup>34)</sup>의 두드러진 활동으로 불교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충렬왕과 충숙왕대에 걸쳐 국내의 유가승들은 國尊에 봉해지고, 국왕으로부터 僧政權을 위임받기까지 하여 당시 법상종은 불교계에서 강력한 宗勢를 떨치고 있었다. 따라서 원나라에 건너간 해원의 활발한 활동은 고려 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던 법상종의 위세에도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국존 미수가 입적한 후 충숙왕이 天曆年間(1328-1329; 충숙왕15-16)에 해원에게 金山寺에 머물기를 청하면서 慧鑑圓明遍照無礙國一大師라는 號를 내리고, 重大匡祐世君에 봉한 사실을<sup>35)</sup>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해원은 79세로 입적하던 順帝 至元6년(1340)까지 29년 동안(1312-1340) 복원사에 주지했다. 그가 주지하던 중에 복원사는 무종을 위한 祭禮에 많은 高麗僧이 참여할 정도로 고려적인 색채를 띤 원황실의 願堂이었고,<sup>36)</sup> 또한 해원이 瑜伽教師였던 만큼 唯識學에 대한 열띤 강론이 벌어지던 唯識사원이기도 했다.<sup>37)</sup> 당시 고려의 법상종은 국내의 동화사와 법주사를 중심으로 한 혜영과 미수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복원사 주지 해원의 활약으로 그 교세를 大都에까지 확장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延聖寺와 天台僧 義旋

33) 金暄, 「桐華寺弘眞國尊眞應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687쪽

34) 李叔琪, 「法住寺慈淨國尊普明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488쪽

35) 李穀, 「大崇恩福元寺 高麗第一代師圓公碑」, 『稼亭集』 권6

36) 『元史』 권33, 本紀 文宗 天曆2년 12월 甲辰

37) 李穀, 「大崇恩福元寺 高麗第一代師圓公碑」, 『稼亭集』 권6, “於其所謂唯識之論, 已通大意, 不與人譟譟爭辨”

延聖寺는 大都에 위치한 巨刹로서 황실의 출입이 잦은 도성 내의 주요사원이었다. 『元史』에는 연성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단편적인 기사가 전하고 있다.

顯宗의 神御殿을 盧師寺에 세우고 大天源延聖寺라는 額을 내렸다. 西番字로 된 藏經을 金書하도록 하였다.<sup>38)</sup>

위의 글은 泰定帝가 泰定3년(1326; 충숙왕13)에 顯宗의 神御殿을 盧師寺에 세우면서 大天源延聖寺라는 額을 내려 주었고, 또 그곳에서 西番(西藏)字 즉 티베트문자의 경전을 金書하도록 했다는 기록이다. 먼저 노사사 내에 현종의 신어전이 건립되면서 그 사원의 이름이 연성사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顯宗은 태정제의 아버지가 되는 晉王 甘麻刺(1263-1302)<sup>39)</sup>를 말한다. 그리고 위의 글을 통해 연성사가 티베트불교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sup>40)</sup> 이렇게 연성사가 현종의 神御殿寺院이었던 만큼 연성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적지 않았다.<sup>41)</sup> 이에 따라 연성사는 태정제 말년에 이르러 財賦 담당의 總管府를 두게 되는 등 大寺刹로 발전했다.<sup>42)</sup>

그러나 태정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연성사 내에 있던 현종의 신어전

38) 『元史』 권30, 本紀 泰定帝 泰定3년 2월 丙申, “建顯宗神御殿於盧師寺, 賜額曰大天源延聖寺. 勅以金書西番字藏經”

39) 충선왕비 薊國大長公主의 아버지로 태정제에 의해 光聖仁孝皇帝로 추존되었다. 『元史』 권115, 列傳 顯宗

40) 연성사가 티베트불교계 사찰이라는 사실은 태정제가 티베트불교의 통수자인 帝師에게 명하여 연성사에서 佛事를 거행하도록 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元史』 권30, 本紀 泰定帝 泰定4년 10월 癸卯, “命帝師作佛事于大天源延聖寺”

41) 『元史』 권30, 本紀 泰定帝 泰定3년 10월 庚辰

42) 『元史』 권30, 本紀 泰定帝 致和1년 3월 辛未, “大天源延聖寺顯宗神御殿成, 置總管府以司財賦”

은 그만 폐해지고 말았다.<sup>43)</sup> 이것은 태정제 死後에 황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황실 내의 정치적 분쟁 때문이었다. 태정제(1324-1328)가 병사한 후 그 뒤를 이은 天順帝가 무력 쿠데타에 의해서 제거되고 황권이 武宗의 아들 되는 明宗, 文宗 형제에게로 넘어갔다. 이러한 황실의 정권쟁탈전 속에서 현종의 신어전은 廟室과 함께 폐해지고 만 것이다.<sup>44)</sup> 文宗代(1329-1331)에 이르러 연성사는 明宗의 신어전사원이 되었고<sup>45)</sup> 이후 順帝(명종의 장자) 때에도 같은 기능을 하였다.<sup>46)</sup> 이렇게 티베트불교계 사원으로서 泰定年間에는 顯宗의 신어전사원이었고, 文宗과 順帝代에는 明宗의 신어전사원이었던 연성사와 관련하여 李齊賢(1287-1367)은 「妙蓮寺重興碑」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順菴旋公은 圓慧의 적자요 無畏의 조카로 天子가 三藏이란 호를 내려 燕都의 大延聖寺에 있도록 하였다. 後至元 丙子年(1336)에 降香하러 東으로 돌아왔다.<sup>47)</sup>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승 義旋이 天子의 명에 의해서 원나라 燕都(大都)의 연성사에 주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의선은 어느 시기에 어느 天子에 의해서 연성사에 주지했으며, 또 주지하게 된 연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먼저 충선왕과 원황실의 관계를 보면, 晉王의 長子인 태정제와 충선왕의 제1妃인 계국공주가 남매 관계이므로 태정제와 충선왕은 서로 妻甥 妹夫

43) 『元史』 권75, 志 祭祀4 神御殿, “泰定二年, 亦作顯宗影堂于大天源延聖寺, 天曆元年廢”

44) 『元史』 권115, 列傳 顯宗

45) 『元史』 권33, 本紀 文宗 天曆2년 11월 乙卯; 『元史』 권114, 列傳 后妃1 八不沙皇后, “后八不沙請爲明宗資冥福, 命帝師率羣僧作佛事七日于大天源延聖寺”

46) 『元史』 권40, 本紀 順帝 至元6년 4월 庚寅, “詔大天源延聖寺立明宗神御殿碑”

47) 李齊賢, 「妙蓮寺重興碑」, 『益齋亂藁』 권6, “順菴旋公, 圓慧之嫡嗣, 無畏之猶子. 天子錫號三藏, 命住燕都之大延聖寺, 後至元丙子降香東歸”

사이가 된다.<sup>48)</sup> 그리고 충선왕의 조카 되는 瀋王 王暘(江陽公 滋의 子)는 진왕의 제2子인 松山 梁王의 딸 즉 충선왕의 妻조카와 혼인하였다. 따라서 충선왕은 旃王의 가계와 매우 밀접한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정제 재위 중에는 누구보다도 황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다.

다음으로 충선왕과 趙仁規 가문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둘 사이가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태정제의 즉위(1323년 9월)와 함께 충선왕이 티베트의 유배생활(1320, 12-1323, 9)에서 석방되던 때에 조인규 가문 출신의 승려로는 義旋이 있었다. 의선은 조인규의 제4자로 태어나 어릴 때 妙蓮寺에 出家한 천태승이었다. 충숙왕9년(1322)에 밀양 瑩源寺의 주지가 된 의선은<sup>49)</sup> 이때 곧바로 元나라에 건너가 천자의 명을 받고 降香使로 歸國할 때까지 15년 간(1322-1336) 그곳에서 체류하였다.<sup>50)</sup> 아마도 의선은 이 기간 중에 泰定帝(1324-1328)의 命에 의해서 연성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언뜻 보아 의선과 태정제 사이는 서로 무관한 관계인 듯하지만 양자 사이에 忠宣王을 상징해 놓고 보면 그들 사이는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가까워지고 신뢰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정제는 충선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조인규 가문의 의선에게 아버지 顯宗을 모신 延聖寺에 주지하도록 하고, 또 三藏法師라는 法號도 함께 내려준 것이다. 연성사는 원간섭기 중에 고려왕실과 원황실이 가까운 一家를 이루고 있던 상황에서

48) 旃王 甘麻刺는 3男3女를 두었는데 그중 長子가 泰定帝, 2子는 宋山, 장녀가 충선왕비 薊國大長公主였다.

49) 李齊賢, 「有元高麗國 曹溪宗慈氏山瑩源寺 寶鑑國師碑銘」, 『益齋亂藁』 권7, “至理二年冬十月感疾, 移席于松林寺”

50) 의선이 강향사로 고려에 귀국한 것이 至元 丙子년(1336)이고 至元 戊寅년(1338)에 다시 원나라로 돌아갔다. 李齊賢, 「妙蓮寺重興碑」, 『益齋亂藁』 권6 ; 李穀, 「高麗國天台佛恩寺重興記」, 『稼亭集』 권3 ; 高翊晉, 「白蓮寺의 思想傳統과 天頌의 著述問題」, 『佛教學報』 제16집(서울: 佛敎文化研究院, 1979), 147-148쪽 참조

양국의 정치권과 긴밀히 밀착된 세력에 의해서 황실의 원당이 운영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려의天台僧인 의선이 티베트불교계의 연성사에 주지한 사실은 당시(충숙왕대) 고려의天台宗과 티베트불교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51)</sup>

元世祖 때 파파(八思巴)에 의해 전파된 티베트불교는 密敎的인 성격이 강한 종교였다. 세조(1260-1294)는 파파(1239-1280)를 國師, 帝師로 삼고 티베트불교를 國敎로 삼기까지 하였다. 세조가 특히 추앙하여 元代에 전성기를 누린 티베트불교가 의선이 천태종 사원인 妙蓮寺에 出家한 사실로부터 이미 忠烈王代(1275-1308)에 묘련사를 통해 전파되지 않았을까 추론하기도 한다.<sup>52)</sup> 사실 묘련사가 세조의 딸인 충렬왕비 齊國公主와 태자시절부터 對元外交를 위해 원나라를 자주 출입한 충렬왕의<sup>53)</sup> 發願으로 창건된 사원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고려불교(천태종)와 티베트불교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妙蓮寺의 創建과 義旋의 延聖寺 住持 사실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sup>54)</sup>

### 3. 高麗人 宦官의 主宰사원(龍泉寺, 法王寺)

51) 李龍範, 「元代 喇嘛敎의 高麗傳來」, 『佛敎學報』 제2집(서울: 佛敎文化研究院, 1964), 184-185쪽 참조

52) 이용범은 충렬왕27년 正月 丙辰日(15일) 왕과 百官들의 묘련사 행차가 元朝之禮로서 티베트불교와 연관된 儀式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李龍範, 앞의 글, 1964, 180-181쪽 ; 『高麗史』 권32, 世家 忠烈王27년 正月 丙辰, “王率百官行妙蓮寺, 爲皇帝祝釐. 諸路行省以下官, 皆以正月朔望行香祝釐, 盖元朝之禮也”

53) 충렬왕은 태자 때 5회에 걸쳐 入元하여 총 50개월을 보냈고, 국왕 재위 시에는 묘련사가 창건되기 전까지 3회에 걸쳐 입원하여 총 10개월을 보냈다. 金惠苑, 「忠烈王 入元行績의 性格」, 『高麗史의 諸問題』 (서울: 三英社, 1986), 805-806쪽 참조

54) 이것에 대한 해법을 고려불교의 密敎的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

1) 龍泉寺와 宦官 李信·申當主

大都 大興縣에 소재한 龍泉寺는 金나라를 거쳐 元代까지 존속되어 온 古寺刹이었다. 절은 元 仁宗代(1312-1320)부터 順帝代(1333-1367) 초까지 약 20년에 걸쳐 重創 되었는데, 그 작업을 주재한 인물은 고려인 환관 李信, 申當主 그리고 고려승 戒明禪師였다.<sup>55)</sup>

용천사의 중창은 中政院使 李信<sup>56)</sup>으로부터 시작된다. 元 仁宗 때 한 西域僧의 요청으로 절을 外護하게 된 이신이 인종 延祐4년(1317) 경에 중창에 착수하여 여러 건물들을 중수, 증건하였지만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같은 신분의 환관 申當主와 자신의 조카인 崔伯淵에게 사원의 일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신을 이어서 용천사의 중창을 주재한 典瑞使 신당주는 주로 文宗(1329-1331)과 順帝(1333-1367) 때 황실의 총애를 받고 활동한 고려인 환관이었다. 특히 그는 문종의 황후인 卜答失里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용천사의 중창과업을 맡게 되었다. 당시 이신을 총애한 복답실리는 순제의 叔母로서 용천사의 중창을 후원한 시주자였을 뿐 아니라, 절의 중창을 신당주에게 주재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종황후 복답실리가 용천사 중창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문종대부터 순제대에 걸쳐 帝位를 둘러싼 元 말기 황실의 복잡한 혼란 상황 때문인 듯하다. 明宗의 弑害 의문과 명종황후 八不沙皇后의 피살 의혹,<sup>57)</sup> 황태자 阿刺忒納答里(복답실리의 子)의 갑작스러운 죽음과(1331년 2월) 곧 이은 문종의 죽음(1332년 8월), 문종을 이은 寧宗(明宗의 차남)의 재위 두 달만의 죽음(1332년 11월),<sup>58)</sup> 명종의 長子인 順帝의 즉위<sup>59)</sup> 등 복답실리는 당시 황

55) 李穀, 「大都大興縣 重興龍泉寺碑」, 『稼亭集』 권6

56) 고려인 환관으로서 충렬왕 때 降香使로 고려를 방문했고, 忠宣王 때 寧越君으로 책봉되었고 晉王의 願刹로 지장된 興天寺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려에 파견된 예가 있다. 『高麗史節要』 권22, 忠烈王27년 9월 ; 『高麗史』 권34, 世家 忠宣王3년 9월

57) 『元史』 권114, 列傳 后妃1 卜答失里皇后, “后與宦者拜住, 謀殺明宗后八不沙”

실의 불행과 제반 문제를 한 몸에 안고 있던 주인공이었다. 특히 복답실리의 소생이고, 순제에게는 4촌 되는 燕帖古思가 엄연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언제 다시 일어날 줄 모르는 권력투쟁의 불안이 늘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가 복답실리로 하여금 더욱 불교에 귀의하게 하여 용천사의 중창에 적극 참여하게 한 것이다.<sup>60)</sup> 이같은 황실의 여건 속에서 신당주는 복답실리의 후원과 고려승 戒明(최백연의 子)의 도움을 받아 至元3년(1337) 경 대략 20년에(1317-1337; 충숙왕4-복위6) 걸친 절의 중창을 완결할 수 있었다.

용천사의 중창이 황실의 후원과 황실의 총애를 받던 환관들의 노력으로 완결됨에 따라 절은 자연히 元皇室의 願堂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다만 시주자인 복답실리가 至元6년(1340) 6월에 순제에 의해서 安東州로 폐위되고 곧 세상을 떠남에 따라<sup>61)</sup> 이후 용천사의 寺勢는 위축되었으리라고 본다.

## 2) 法王寺와 宦官 李三眞·趙芬

법왕사는 앞서 살펴 본 용천사와 유사하게 趙芬을 비롯한 고려인 宦官들과 황실의 보시에 의해서 창건된 大都 소재의 사원이었다.<sup>62)</sup> 절은 順帝 元

58) 寧宗은 7세에 즉위하여 40여일 만에(1332, 10-1332, 11) 사망하였다. 『元史』 권37, 本紀 寧宗

59) 明宗의 아들인 순제는 11세 때 숙부인 文宗에 의해서 고려 大清島로 유배되었다. 12세 때 廣西로 다시 유배되었다가, 13세 때인 元統1년(1333) 6월 上都에서 황제에 즉위하였다.

60) 李穀, 「大都大興縣 重興龍泉寺碑」, 『稼亭集』 권6, “自文皇晏駕之後, 尤切歸崇, 供佛飯僧, 惟日不足” 복답실리가 문종 死後에 불교에 더욱 귀의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 그녀가 용천사의 불사에 참여한 시기는 1332년 이후였을 것이다. 복답실리는 문종 재위 중에 (大承天)護聖寺를 적극 후원하였다. 『元史』 권114, 列傳 后妃1 卜答失里皇后

61) 『元史』 권40, 本紀 順帝 至元6년 6월 丙申; 『元史』 권114, 列傳 后妃1 卜答失里皇后. 복답실리의 아들 燕帖古思는 고려로 유배가던 중 지원6년 7월에 사망했다. 『高麗史』 권36, 世家 忠惠王 後1年; 『元史』 권40, 本紀 順帝 至元6년 7월 丁卯

統2년(1334; 충숙왕 복위3)에 창건되기 시작하여 순제 至正3년(1343; 충혜왕 복위 4)에 완공되었다.

법왕사의 창건에 공헌한 대표적인 인물은 有泉府使 李三眞, 太醫院使 趙芬 등으로 이삼진은 忠宣王으로부터 淮陰君에 봉해진 고려인 환관이었고,<sup>63)</sup> 조분은 고려 永春사람으로 世祖 때 황궁에 들어와 법왕사 완공 때까지 거의 50년 동안을 환관으로 있던 인물이었다.<sup>64)</sup> 이외에도 고려인 환관으로 典瑞使 申堂住, 同知民匠摠管府事 朴瑣魯兀大, 大府大監 朱完澤帖木兒 등이 법왕사의 건립을 위해 보시하였다. 여기서 신당주는 앞서 용천사의 증창에서 본 동일 인물이고,<sup>65)</sup> 박쇄노을대는 고려 廣州人으로 주로 武宗(1308-1311)과 仁宗代(1312-1320)에 활동했던 인물이다.<sup>66)</sup> 법왕사가 한창 건립 중이던 때는 황제와 황후의 보시도 이어지면서 거의 10년 만에(1334-1343) 절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황실과 그 측근의 환관들이 대거 참여하여 건립된 법왕사였지만, 주위의 鄕人들도 사원에 정기적으로 출입한 사실이 주목된다. 즉 향인들이 매년 봄, 가을로 돈을 거두어 誦經 듣기를 상례로 하였다고 전하는 것이다.<sup>67)</sup> 법왕사가 주로 황실의 복을 기원하던 願堂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의 향촌 사람들과도 소통된 사원이었음을 말해준다.

#### 4. 高麗民의 創建사원(興福寺, 法源寺, 金孫彌陀寺)

62) 李穀, 「大都天台法王寺記」, 『稼亭集』 권4

63) 『高麗史節要』 권23, 忠宣王2년 9월

64) 李穀, 「大都天台法王寺記」, 『稼亭集』 권4

65) 「용천사비」에서는 申當主, 「법왕사기」에서는 申當住로 표기했다.

66) 李穀, 「大元高麗國 廣州神福禪寺重興記」, 『稼亭集』 권3 ; 「高麗國贈匠靖大夫 … 朴公祠堂記」, 『稼亭集』 권4

67) 李穀, 「大都天台法王寺記」, 『稼亭集』 권4, “鄕人好善者, 約春秋率錢, 聽誦大經, 歲以爲常”



## 1) 興福寺와 長城郡夫人 任氏

大都의 南城 남쪽에 위치한 興福寺는 高麗僧 원담, 승안, 법운 등이 절의 터를 잡고 역시 고려인 長城郡夫人 任氏가 많은 돈과 토지를 보시하여 창건한 사원이었다. 절의 공정은 仁宗 皇慶2년(1313; 충선왕5)에 시작되어 인종 延祐4년(1317; 충숙왕4)에 완공되었다. 흥복사는 고려승과 任氏여인이 고향을 떠나 대도에 거주하면서 서로의 돈독한 佛心을 바탕으로 하여 창건한 절이었다.

여기서 흥복사의 창건에 크게 기여했던 任氏여인의 이력이 다소 특이하다. 임씨가 흥복사에 많은 재물을 보시하게 된 계기는 世祖(1260-1294) 때부터 皇后宮에 일하여 황실로부터 후한 賞을 받게 되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뜻에서였다.<sup>68)</sup> 임씨의 신분이 황후궁에서 일한 宮女였던 것을 보면 그녀는 고려에서 건너간 貢女였음이 분명하다. 고려에서 공녀로 뽑혀 황궁에 들어간 임씨는 궁중 일을 하는 宮人으로서 있다가 황실로부터 받은 재물을 보시하여 흥복사를 창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흥복사는 어떤 사원보다도 異國 땅에서 생활하고 있던 일반 高麗民을 위한 사원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 먼저 절의 창건에 참여한 시주자는 원담을 비롯한 몇몇 고려승과 궁인 출신의 임씨가 전부이고 앞서 본 龍泉寺, 法王寺의 예처럼 황실이나 환관의 보시는 없었다. 그리고 흥복사가 완공된 이후로는 代를 이어가며 고려의 승려들이 講席을 주관했다.<sup>69)</sup> 더욱이 사원의 이름을 福을 흥하게 하는 절이라는 뜻에서 ‘興福寺’라고 한 것은 보통의 일반민이 부처님께 바라는 소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다른 사원들과 비교할 때 지극히 소박한 寺院名인 것이다. 따라서 흥복사는 당시 고국을 떠나 곤궁한 삶을 영위해 가던 대도 南城 주변의 고려

68) 李齊賢, 「大都南城興福寺碣」, 『益齋亂藁』 권7, “自世祖皇帝時, 遇知於椒闈, 賞賚甚厚, 常思有以祝釐報上者”

69) 李齊賢, 「大都南城興福寺碣」, 『益齋亂藁』 권7

인이 수시로 출입한 신앙의 안식처가 되었을 것이다.

## 2) 法源寺와 金氏부인

大都의 法源寺는 인도승 指空禪賢(?-1363)이 인도, 티베트, 원, 고려에 걸친 오랜 遊歷을 마치고 그의 여생을 보낸 사찰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법원사가 한 고려 女人에 의해서 지공에게 마련된 절이었고, 또 고려말의 高僧들이 이 절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李穡은 법원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師는 天曆年間부터 僧衣를 벗었다. 大府大監 察罕帖木兒의 아내 金氏는 고려 사람이었다. 師를 좇아 출가하여 澄清里에 집을 사서 佛宮을 삼고 師를 맞아 살게 하였다. 지공이 절을 法源이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천하의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므로 그 뜻을 취하여 스스로 비유한 것이다.<sup>70)</sup>

위의 글은 元 天曆年間(1328-1329; 충숙왕15-16) 무렵에 高麗人 金氏부인이 指空禪師를 따라 出家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지공을 위해 法源寺를 마련해 주어 지공을 그곳에 머물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金氏가 大府大監 察罕帖木兒<sup>71)</sup>의 아내였다는 사실로 보건대, 그녀는 貢女의 신분으로 원

70) 李穡, 「西天提納薄陀尊者浮屠銘」, 『牧隱文藁』 권14, “師自天曆褫僧衣. 大府大監 察罕帖木兒之室金氏亦高麗人也. 從師出家買宅澄清里, 闢爲佛宮, 迎師居之. 師題其額曰法源, 蓋天下之水, 自西而東, 故取以自比焉”

71) 元 中政院 宦官으로서 忠肅王 즉위 때(1313) 고려에 파견되었고 同王11년(1324)에 大匡 安山君에 책봉되었다. 『高麗史』 권34, 世家 忠肅王 즉위년 4월, “中政院遣宦者察罕帖木兒等三人”; 『高麗史』 권35, 世家 忠肅王11년 2월 察罕帖木兒를 恭愍王1년(1352)에 흥건적을 토벌한 『元史』 列傳 속의 의병장으로 간주하거나 고려에 파견된 宦者 찰한침목아를 元末의 장군 찰한침목아와 동일인으로 취급하기까지 한다. 祁慶富, 「指空中國行蹟考」, 『伽山學報』 제5호(서울: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6), 70쪽; 許興植, 「指空禪賢」,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서울: 一潮閣, 1997), 57쪽; 토니노 푸지오니, 「元代 奇皇后의 佛敎後援과 그 政

나라에 건너간 고려여인이었을 것이다. 원 간섭기에는 元의 관리나 사신들이 고려여자를 아내로 혹은妾으로 삼는 일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sup>72)</sup>

그러면 金氏부인은 어떤 연유로 지공을 위해 법원사를 마련해 준 것인가. 天曆年間 초에 지공은 文宗(1329-1331)과 가깝게 지내던 승려들에 의해 모함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위의 글에서 “僧衣를 벗었다”고 한 것은 당시 지공의 그러한 처지를 말하고 있다.<sup>73)</sup> 이때 金氏부인은 어려움에 처한 지공을 위해 法源寺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sup>74)</sup> 법원사의 이러한 창건 배경은 절이 다분히 世俗과는 거리가 먼 승려들의 순수한 修行의 道場이었음을 말해준다. 법원사가 고려인에 의해 세워진 관계로 절에는 자연히 高麗僧의 출입이 잦았다. 碑銘에 “지공이 살고 있는 절에는 거의 高麗僧이 거주했다”<sup>75)</sup>고 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법원사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한편 법원사가 지공이 그의 만년을 보냈던 절이라는 사실 외에도 고려의 高僧들이 지공을 만난 사원으로도 유명하다. 법원사에서 指空의 禪思想이 고려의 禪僧들에게 전수된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懶翁慧勤(1320-1376)

治的인 意義, 『普照思想』 제17집(서울: 普照思想研究院, 2002), 156쪽 주 151

그러나 지공의 비명에 보이는 察罕帖木兒의 관직이 大府大監이라는 사실은 그를 元末의 武將으로 보기 어렵다. 김씨부인이 天曆年間(1328-1329)을 전후하여 활동한 사실로부터 이와 근접한 시기인 충숙왕대에 고려에 파견되고(1313년) 君으로 봉해 진(1324년) 宦者 찰한첩목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2) 權衡, 『庚申外史』 권2, “當高麗美女, 大臣有權者輒以此女送之京師, 達官貴人必得高麗女, 纔爲名家”

73) 許興植, 「指空禪賢」,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서울: 一潮閣, 1997), 56쪽

74) 祁慶富는 법원사가 寺院이 아닌 지공이 거처한 단순한 주택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비명에서 엄연히 ‘關爲佛宮’이라고 한 것을 사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다. 唐代에 창건되고 清代 雍正年間에 법원사로 賜額된 현 北京 소재의 법원사와 元代에 김씨부인이 지공에게 마련해 준 법원사가 서로 무관하다는 이유 때문에 김씨부인의 법원사는 절이 아니고 단순히 지공이 거주한 장소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논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祁慶富, 「指空中國行蹟考」, 『伽山學報』 제5호(서울: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6), 70쪽 참조

75) 李穡, 「西天提納薄陀尊者浮屠銘」, 『牧隱文藁』 권14, “師所居寺, 皆高麗僧”

의 경우다. 나옹은 10년 간(1348, 3-1358, 3) 원나라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두 3차례 법원사에서 지공을 親見했다.<sup>76)</sup> 나옹은 恭愍王2년(1353) 3월의 만남에서 지공으로부터 法衣와 佛子, 梵字信書 등을 받았다.<sup>77)</sup> 법원사에서 지공의 法脈이 나옹에게로 계승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나옹의 방문과 비슷한 시기에 無學自超(1327-1405)와 正智國師 智泉(1324-1395), 白雲景閑(1299-1375) 등이 지공을 참례하고 화답한 장소가 바로 법원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는 아직 없다.<sup>78)</sup> 하지만 한 고려여인에 의해 건립된 법원사에서 나옹에게 指空禪이 전수되고 傳燈의식이 행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원이 갖는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법원사가 김씨부인에 의해 건립된 지 20여 년이 지난 元干涉期末, 恭愍王代(1352-1374)에 이르러 나옹禪師와 같은 高麗末의 대표적인 고승이 그곳을 방문한 사실은 당시 고려의 禪宗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고려말의 불교계는 天台宗, 法相宗이 우세하던 원간섭기와는 달리 禪宗 위주로 재편성 되어가고 있었다. 그 시기에 법원사는 새로운 禪法을 통해 불교계를 혁신하려는 고려의 求法禪僧들에게 指空禪을 전수한 道場이었던 것이다.

### 3) 金孫彌陀寺와 金伯顏察·孫氏부인

金孫彌陀寺는 宛平縣 池水村에 위치한 사찰로서 文宗 至順2년(1331; 충혜왕1년) 1월에 창건되었다.<sup>79)</sup> 이것은 원나라 高官으로 있던 고려인 金伯顏

76) 나옹과 지공의 만남은 1348, 3-1350, 3 ; 1353, 3-1353, 4 ; 1357-1358, 3월에 이루어졌다.

77) 覺宏, 「普濟尊者諡禪覺懶翁和尚行狀」, 『韓國佛教全書』 제6책(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4), 705쪽 中

78) 정지국사 지천이 왕사 무학과 함께 法泉寺 혹은 法雲寺에서 지공을 만났다고 한다. 權近, 「追贈正智國師碑銘」, 『陽村集』 권38 ; 「龍門寺正智國師碑」, 『朝鮮金石總覽』 下, 727쪽

79) 李穀, 「京師金孫彌陀寺記」, 『稼亭集』 권2

察이 그의 부인 孫氏와 함께 발원하여 창건한 절이었다. 절의 이름은 金氏·孫氏 부부의 姓을 살려서 ‘金孫彌陀寺’라고 한 것인데 사원이 전적으로 두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김백안찰은 忠烈王 때 원황실에 파견된 禿魯花(人質)였다. 그는 成宗 大德(1297-1307; 충렬왕23-33) 초에 황실에 入侍하여 30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면서 높은 지위와 부를 누렸다. 金氏는 자신의 출세와 집안의 번창이 모두 부처님과 因緣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말년에 그의 부인 孫氏와 함께 김손미타사를 건립했던 것이다. 이후 손씨부인이 사망하자 절 북쪽에 장지가 마련되어 그녀의 명복을 빌었고, 또 김백안찰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사재를 절에 보시하게 함으로써<sup>80)</sup> 김손미타사는 전형적인 가족의 願堂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 III. 大都寺院의 推移와 그 배경

지금까지 살펴본 大都寺院이 高麗人과 연관을 맺은 내용과 그 시기, 사원의 주요 機能과 소속 宗派 등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高麗 忠烈王代(1275-1308)에 해당하는 元 世祖(1260-1294), 成宗代(1295-1307)에는 ‘在元 高麗人 관련의 大都寺院’(이하 大都寺院)이 나타나기 전이었다. 물론 이것은 원나라에 건너간 고려인의 활동상황과 직결된 문제일 것이다. 이때는 元에 거주한 다양한 부류의 高麗人이 각자의 위치에서 아직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전이었던 만큼 그러한 성격의 사원이 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 忠宣王(1309-1313) 말, 元 仁宗(1312-1320) 초에 이르러 고려승 海圓이 대도 福元寺에 진출하면서 大都寺院이 출현하게 되었다.

80) 李穀, 「京師金孫彌陀寺記」, 『稼亭集』 권2

〈표 1〉 大都寺院의 高麗人과 사원 상황

| 寺院名   | 관련된 高麗人과 그 시기                          | 사원의 機能과 소속 宗派                  |
|-------|----------------------------------------|--------------------------------|
| 光敎寺   | 忠宣王 창건(1317-1319)<br>天台僧 義旋 주지(1332-?) | 高麗王室의 願堂,<br>天台宗 → 華嚴宗 → 天台宗   |
| 福元寺   | 瑜伽僧 海圓 주지(1312-1340)                   | 元 武宗의 神御殿사원, 法相宗               |
| 延聖寺   | 천태승 의선 주지(1324-?)                      | 元 顯宗 · 明宗의 神御殿사원,<br>티베트불교계 사원 |
| 龍泉寺   | 환관 李信 · 申當主, 戒明禪師 중창<br>(1317-1337)    | 元皇室의 원당, 禪宗                    |
| 法王寺   | 환관 李三眞 · 趙芬 중창<br>(1334-1343)          | 원황실의 원당, 천태종                   |
| 興福寺   | 高麗僧, 長城郡夫人 任氏 창건<br>(1313-1317)        | 高麗民의 信仰所                       |
| 法源寺   | 金氏부인 창건(1328-1329)                     | 指空의 주석사원, 선종                   |
| 金孫彌陀寺 | 金伯顔察 · 孫氏부인 창건(1331)                   | 金氏가족의 원당                       |

## 1. 元 仁宗~天曆年間 무렵의 大都寺院과 高麗人

元 成宗으로부터 초빙을 받아 元에 건너간 瑜伽僧 海圓(1262-1340)이 仁宗 皇慶1년(1312; 충선왕4)에 武宗(1308-1311)의 神御殿寺院인 복원사에 주지하였다. 해원의 주지기간은 29년 동안(1312-1340) 계속되었는데, 당시 황권을 둘러싼 거듭되는 政爭 속에서 황실과 특별한 인척관계도 맺고 있지 않던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주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충선왕 말, 인종 초에 복원사가 고려승 해원에 의해서 운영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고려 忠肅王代(1314-1330), 元 仁宗~泰定帝代(1312~1328)·天曆年間(1328-1329) 무렵에는 다수의 大都寺院이 출현한 시기였다.

먼저 興福寺가 고려승 원담, 승안, 법운 그리고 고려의 貢女 출신인 長城郡夫人 任氏의 보시로 仁宗 皇慶2년(1313; 忠肅王 즉위년)에 창건되었다. 절은 인종 延祐4년(1317; 忠肅王4)에 낙성되어 고려승이 講席을 주관하면서 주로 고려민이 출입하는 신앙의 안식처가 되었다. 다음으로 光敎寺가 당시 上王인 충선왕에 의해서 仁宗 延祐4년(1317; 충숙왕4)에 창건되어 연우6

년(1319; 충숙왕6)에 완공되었다. 이 사원은 충선왕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薊國大長公主(?-1315)와 懿妃(?-1316)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 왕실의 원당으로서 충선왕이 사망한 후에는妃들과 함께 충선왕 자신의 원당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龍泉寺가 인종 연우4년(1317; 충숙왕4)경에 고려인 宦官 李信에 의해서 중창되기 시작하였다. 절의 중창은 順帝 때 환관 申當主에 의해서 대략 20년 만에(1317-1337) 완결된다. 그리고 泰定帝代(1324-1328; 충숙왕11-15)에 天台僧 義旋이 顯宗의 神御殿사원인 延聖寺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당시 의선이 연성사에 주지할 수 있었던 것은 趙仁規 가문과 고려왕실의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그가 麗元 양국에서 펴 나간 政治的 역량 때문이었다. 또 法源寺가 天曆年間(1328-1329) 무렵에 고려의 공녀였던 金氏부인에 의해서 指空(?-1363)을 위해 마련되었다. 지공이 만년을 보냈던 법원사는 일찍부터 많은 고려승이 거주한 관계로 高麗寺<sup>81)</sup>라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려 忠宣王·忠肅王代, 元 仁宗~泰定帝代·天曆年間 무렵 약 20여 년에 걸쳐 많은 대도시원이 출현,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元에 진출한 일부 고려인들은 그 동안 쌓아온 공로의 결과로 나타난 황실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여 상당한 명성과 富, 그리고 權力을 축적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海圓과 義旋은 先帝의 祭禮를 거행하는 신어전사원 복원사와 연성사에 주지하게 되었고, 장성군부인 任氏는 흥복사의 창건을 위해 보시하였고, 역시 金氏부인은 指空을 위해 법원사를 마련해 주었고, 황실의 측근인 환관 李信은 용천사의 중창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이 시기 고려왕실과 원황실은 가까운 인척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어

81) 至仁, 「指空禪師偈序」, 『澹居稿』 권1; 許興植, 「指空禪賢」,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서울: 一潮閣, 1997), 58쪽 주141 제인용, “歷泰定天歷, 逮今天子尤如敬禮, 以詔高麗寺之丈室”

는 때보다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상호 간에 다양한 佛事를 빈번히 열고 있었다. 武宗·仁宗 형제는 충선왕에게 妻四寸이 되고, 또 충선왕의 宿衛시절부터 이들 사이는 매우 가까웠다. 특히 충선왕은 인종과 함께 무종의 황제 옹립에도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인종을 이어 英宗(1321-1323)이 즉위하게 되면서 충선왕이 유배되는 등 잠시 고려왕실과 원황실의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충숙왕에게 外三寸이 되는 泰定帝가 즉위하게 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다시 정상화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고려왕실이 원황실을 위해 베푼 불사를 살펴보면, 충선왕 복위년(1308)에 神孝寺에서 무종을 위한 祝壽齋를 열었고,<sup>82)</sup> 충선왕2년(1310)에 역시 신희사에서 무종과 인종 형제의 생모인 壽元皇太后(?-1323)를 위한 祈福佛事를 올렸다.<sup>83)</sup> 한편 이때 원황실 측에서도 고려사원을 위한 많은 보시가 이어졌다. 英宗 때 수원황태후를 위시한 황실과 측근관리가 금강산 表訓寺를 위해 보시하였고,<sup>84)</sup> 泰定4년(1327)에 태정제의 황후가 청평산 文殊寺를 위해서 보시하였고,<sup>85)</sup> 泰定年間(1324-1327)에 황실의 측근관리인 증정원사 李忽篤帖木兒가 금강산 長安寺를 위해서 보시하였고,<sup>86)</sup> 역시 태정년간에 指空은 금강산 楡岾寺를 방문하여 황실을 위한 불사를 열었다.<sup>87)</sup> 이와 같은 여건과 상황 아래서 복원사, 흥복사, 광교사, 용천사, 연성사, 법원사 등과 같은 다양한 성격의 大都寺院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82) 『高麗史』 권33, 世家 忠宣王 복위년 9월

83) 『高麗史節要』 권23, 忠宣王2년 7월 ; 尹紀燁, 「元干涉期 元皇室의 願堂이 된 高麗寺院」, 『大東文化研究』 제46집(서울: 大東文化研究院, 2004)

8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7, 淮陽都護府, 佛宇 表訓寺

85) 李齊賢, 「有元高麗國 清平山文殊寺施藏經碑」, 『益齋亂藁』 권7

86) 李穀, 「金剛山長安寺重興碑」, 『稼亭集』 권6

87) 張東翼 편, 危素, 「文殊師利菩薩無生戒經序癸巳」, 앞의 책, 1997, 338쪽



## 2. 元末의 大都寺院과 奇皇后

大都寺院은 고려 忠惠王~忠定王代(1331~1351), 元 文宗~順帝代(1329~1367)에도 꾸준히 출현, 발전하였다. 먼저 金孫彌陀寺가 文宗 至順2년(1331; 충혜왕1)에 禿魯花 출신으로서 高官으로 출세한 金伯顏察과 그의 부인 孫氏에 의해서 가족의 願堂으로 창건되었다. 그리고 法王寺가 順帝 元統2년(1334; 충숙왕 복위3)에 환관 李三眞에 의해서 창건되기 시작하여 환관 趙芬의 노력으로 순제 至正3년(1343; 충혜왕 복위4)에 완공되었다. 법왕사의 완공에는 이삼진, 조분 외에도 申當住, 朴瑣魯兀大, 朱完澤帖木兒 등 황실에서 활동한 고려인 환관 다수가 이 불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인종 때 환관 李信에 의해서 증창되기 시작했던 龍泉寺가 순제 至元3년(1337; 충숙왕 복위6) 경에 환관 申當主에 의해서 거의 20년 만에 완공되었다. 용천사는 卜答失里를 비롯하여 順帝, 伯顏忽都皇后, 太子 등을 축원하는 황실의 願堂이었다.

그런데 김손미타사와 법왕사에서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절의 所在地에 관한 문제이다. 이곡의 기문에 따르면 법왕사는 監察御使 觀音奴가 살던 곳이라고 하였다.<sup>88)</sup> 여기서 관음노는 황실의 宿衛가 되어 출세한 韓永(1285-1336)의 차남이면서<sup>89)</sup> 禿魯花(人質)로 원에 갔던 韓謝奇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다.<sup>90)</sup> 이들 韓氏一族<sup>91)</sup>이 거주했던 곳은 大都 관할 하에 있던 宛平縣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sup>92)</sup> 바로 고려인의 집단 거주지인

88) 李穀, 「大都天台法王寺記」, 『稼亭集』 권4, “寺故監察御使觀音奴所居”

89) 韓永에게는 3男이 있었는데 장자가 孝先(일명 帖木兒不花), 2자가 仲輔(觀音奴), 3자가 文獻(承壽)이었다. 李穀, 「有元故亞中大夫 … 高陽侯諡正惠韓公行狀」, 『稼亭集』 권12

90) 『高麗史』 권107, 列傳 韓康

91) 韓永의 가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韓康 → 韓謝奇(독로화) → 韓永(숙위) → 韓孝先 · 仲輔 · 文獻

92) 韓謝奇의 아들 韓永(1285-1336)이 원의 고관으로 활동하다가 바로 원평현 고려장에

高麗莊이 있던 장소였다. 법왕사가 완평현의 고려장에 소재했다는 사실과 절의 창건을 주재한 주역들이 고려인 환관들이었고, 또 그 인근의 鄕村民이 빈번히 출입했다는 사실이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김손미타사 또한 이 宛平縣에 소재했던 것인데, 이곳에서 金水河가 발원하여 도성으로 흘러갔고 또 奉聖州에서 발원한 盧溝河가 역시 완평현을 거쳐 도성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sup>93)</sup> 이것으로 볼 때 당시 완평현은 水路를 통해 인근 도성에 쉽게 이를 수 있던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완평현의 이러한 입지 조건은 그곳에 고려인의 집단 주거지가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通州에 있는 고려장 역시 궁성으로 흘러들어 가는 通惠河를 끼고 있었다는 사실<sup>94)</sup> 통해서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완평현 소재의 김손미타사, 법왕사의 예에서 보듯이 고려장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高麗人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사원이 적지 않게 출현한 듯하다.

元 順帝代(1333-1367)는 고려여인 奇皇后의 등장으로(1340년; 충혜왕 복위) 인해 원황실의 보시에 의한 국내사원에서의 불사가 매우 빈번히 시행된 시기였다. 기황후의 직간접적인 후원으로 長安寺 중창(1343-1345년), 表訓寺·演福寺의 범종 주조(1346년), 敬天寺石塔 건립(1348년) 등이 이루어졌다.<sup>95)</sup> 그런가 하면 순제 至正6년(1346; 충목왕2)에 入元遊學한 太古普愚

---

서 장사지내졌다고 한다. 李穀, 「有元故亞中大夫 … 高陽侯諡正惠韓公行狀」, 『稼亭集』 권12, “以病終於洛陽官舍, 享年五十有二; 張東翼 편, 蘇天爵, 「元故亞中大夫河南府路總管 韓公神道碑銘并序」, 앞의 책, 1997, 254-255쪽 재인용, “以病終於洛陽官舍, 享年五十有二, 是歲 五月戊申. 載其喪歸, 七月己酉, 葬宛平縣高麗莊之原”

93) 『元史』 권64, 志 河渠1 金水河 盧溝河

94) 『元史』 권64, 志 河渠1 通惠河, “東至通州高麗莊入白河, 總長一百六十四里一百四步”; 김호동 역주, 『마로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서울: 사계절, 2000), 237쪽 大都 평면도 참조

95) 尹紀燁, 「元皇室의 布施를 통해 中興된 高麗寺院」, 『普照思想』 제22집(서울: 普照思想研究院, 2004)

(1301-1382)는 그 다음 해에 石屋清珙(臨濟宗 제18대 法孫)으로부터 印可를 받고 순제의 命에 의해 대도 永寧禪寺의 주지가 되어 開堂法會를 열었다.<sup>96)</sup> 懶翁慧勤(1320-1376) 또한 法源寺에서 지공으로부터 法衣와 拂子를 信物로 받은 그 다음 해인 至正15년(1355; 공민왕4)에 순제의 명에 의해 대도 光濟禪寺에 주지하였다.<sup>97)</sup> 당시 기황후는 태고, 나옹과 같은 고려의 禪僧들을 크게 환대하여 황실의 공인종교인 티베트불교보다도 高麗系의 禪宗과 보다 가깝게 지낸 경향이 있었다.<sup>98)</sup>

이러한 상황에서 법왕사, 용천사 등과 같은 大都寺院이 창건, 중창되었던 것이다. 순제 때는 특히 기황후와 황실 측근 고려인 환관들의 보시를 통해 여러 국내사원들이 中興期를 맞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仁宗~泰定帝代(1312~1328)에 못지않은 많은 大都寺院이 출현하였을 것이다.

#### IV. 결론

元干涉期の 고려불교를 논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元나라에 건너간 高麗인이 관련을 맺은 大都 소재의 사원들이다. 이들 사원은 주로 대도에 거주한 고려인들에 의해 건립,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고려 불교사의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검토된 적은 없다.<sup>99)</sup> 그래서

96) 李穡, 「楊州 太古寺 圓證國師塔碑」, 『韓國金石全文』 中世 下, 1230쪽; 雪栖, 「太古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제6권, 695쪽 中

97) 李穡, 「檜巖寺神覺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 下, 1199쪽; 覺璉, 「懶翁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제6권, 712쪽 上

98) 토니노 푸지오니, 「元代 奇皇后의 佛教後援과 그 政治的인 意義」, 『普照思想』 제17집(서울: 普照思想研究院, 2002), 159쪽

99) 다음의 글에서는 寺院名과 그것에 관계한 高麗인이 소개되었다. 張東翼, 「元에 진출한 高麗人」, 『高麗後期外交史研究』(서울: 一潮閣, 1994), 177, 186쪽; 姜好鮮, 「14세기 전반기 麗元 佛教交流와 臨濟宗」(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34쪽; 토

본고에서는 이들 사원을 ‘在元 高麗人 관련의 大都寺院’(이하 大都寺院)으로 이름하고 각 사원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원 전반에 대한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 본론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大都寺院이 高麗佛敎史에서 갖는 意義는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이다.

光敎寺와 延聖寺에는 天台僧 義旋이 주지하고, 福元寺에는 瑜伽僧 海圓이 주지하였는데, 이들 사원을 통해 고려승려의 뛰어난 역량과 함께 元 大都에 미친 고려 종파불교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인이 제3계층 漢人의 범주에 속해있던 현실에서 先帝의 神御殿寺院인 연성사와 복원사에 주지한 두 승려의 활동은 더욱 의미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려인 宦官과 貢女에 의해 시행된 대도의 사원불사는 가장 주목되는 부문이다. 龍泉寺와 法王寺는 황실에서 활동한 고려인 환관들의 노력에 의해 오랜 세월이 걸쳐 완공된 사원이었다. 이들 사원은 고려인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여 그곳 환관들을 결속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고, 특히 법왕사는 高麗莊이 있던 宛平縣에 위치했던 관계로 사원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일반 고려인을 결집시켜주는 구실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興福寺와 法源寺는 貢女 출신의 고려여인의 힘에 의해 건립된 사원으로서 어느 사원보다도 종교적인 색채가 짙었다. 흥복사는 그곳 高麗民에게 신앙의 안식처가 되었고, 법원사는 많은 고려승의 修行 도량이었고, 또 指空禪이 고려의 高僧에게 전수된 사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大都寺院에 다수의 고려인이 참여한 사실과 그들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이들이 고려불교사에서 갖는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도 함께 주목하였다. 충선왕이 창건하고 의선이 주지한 光敎寺는 고려왕실의 願堂이었지만, 본래 天台寺院으로 출발하여 충숙왕의 후원에 의해 발전한 사원이었다. 이것은 충숙왕의 정책적인 배려

니노 푸지오니, 「元代 奇皇后의 佛敎後援과 그 政治的인 意義」, 『普照思想』 제17집(서울: 普照思想研究院, 2002), 137쪽

에 의해 국내 천태종이 國淸寺를 중심으로 부흥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福元寺와 延聖寺에 각기 해원과 의선이 주지한 사실은 두 승려의 역량도 크게 작용했지만, 당시 충선왕, 충숙왕대에 국내에서 강성한 세력을 떨치던 천태종과 법상종의 宗勢를 반영한 것이었다. 天台僧 의선의 광교사 · 연성사 주지, 그리고 瑜伽僧 해원의 복원사 주지와 그곳에서의 唯識學 연구는 元干涉期에 고려 천태종의 증흥과 그것에 버금가는 고려 법상종의 위상을 보여준 중요한 실례였다. 또한 法源寺에서 禪僧 懶翁慧勤이 指空의 법맥을 이은 사실은 禪宗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던 高麗末 불교계의 한 단면이었다.

元の 干涉期라고 하는 시대적 한계성을 안고 등장한 大都寺院은 고려 불교계가 원의 지배체제 아래에서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능동적인 활약상을 보여준 실증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만하다.

### 주제어

大都(Daedo), 高麗人(Koryŏ people), 光教寺(Gwanggyosa), 福元寺(Bokwonsa), 延聖寺(Yeonseongsa), 龍泉寺(Yongcheonsa), 法王寺(Beopwangsa), 興福寺(Heungboksa), 法源寺(Beopwonsa), 金孫彌陀寺(Kimsonmitasa)

The Daedo temples connected with

## Koryŏ people in Yuan

Yoon, Ki-Yup

There were Daedo(大都) temples connected with Koryŏ(高麗) people in Yuan(元) during Yuan intervention period. They were founded, reconditioned, and operated by Koryŏ people that inhabited in Daedo, the capital of Yuan empire. These temples in Daedo appeared in the process of Koryŏ, Yuan two countries' exchanges.

In those days the Daedo temples which were affected by the two strong sects Cheontaejong(天台宗) and Beopsangjong(法相宗) in Koryŏ, were the Gwanggyosa(光教寺) led by King Ch'ungsŏn(忠宣), Cheontae monk Uiseon(義旋) and the Bokwonsa(福元寺) led by Uga monk Haewon(海圓). And Tibet Buddhist temple Yeonseongsa(延聖寺), which was the memorial hall of Yuan imperial house, was led by the Uiseon of Gwanggyosa. The Yongcheonsa(龍泉寺) and Beopwangsa(法王寺) which were completed, and operated by Koryŏ eunuchs played a role of binding themselves and the Koryŏ people who lived there as well. Also there were Heungboksa(興福寺) and Beopwonsa(法源寺) which were founded with help from tribute of women from Koryŏ. The former became the religious place of peace to Koryŏ people there who lived a very poor life in the foreign country and the latter, which the Sŏn monk Jigong(指空) spent his

later years at, became the stronghold that Jigongsŏn(指空禪) was handed down to the Sŏn monks in Koryŏ. Finally, Kimseonmitasa (金孫彌陀寺) which was founded by the high official Kim who had succeeded in life in Yuan was the memorial hall of the Kim's family.

The Daedo temples connected with Koryŏ people in Yuan showed active operations of Koryŏ Buddhism within a limited extent during Yuan intervention period.